



이재영 전북청장, 고창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8일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치안현장 간담회는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소사기 통합 공조 체계 구축에 기여한 수사지원팀 경사 김가희, 언론보도 작성으로 범죄 예방 활동, 주민발착 치안 발전에 기여한 모양지구대 순경 오경택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최근 증가하는 서민경제 침해 범죄와 생활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특히 보이스피싱,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한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의 기본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경청하는 경찰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행동하는 경찰,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있는 경찰과 함께 인권중심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고창경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창=김경식 기자



한전 군산지사, 임피면 경로당에 생필품 전달

지난 7일,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박상수)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임피면 보석경로당에 70만원 상당의 지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지원품은 다과류와 화장지, 세제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 직원들이 직접 준비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한전 군산지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매년 어버이날 맞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서수면과 임피면 두 곳을 선정해 지원을 진행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 한의사회, 드림스타트 아동 위한 성금 기탁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8일 재단법인 대한환경보건원 숲한의원에서 군산시 한의사회(회장 강성용)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식은 가정의 달인 5월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산시 한의사회가 기탁한 200만원의 성금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운데 가장 형편이 어렵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가족센터, 어버이날 맞아 사랑나눔

남원시 가족센터는 지난 8일 어버이날, 결혼 이주여성들과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결혼이주여성 10명이 참여해 직접 만든 마들렌과 호두파이를 준비해 동충동 경로당 어르신 30명에게 케이션과 함께 전달했다. 참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에 고항에 계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내 곳곳 어버이날 행사 개최

**정읍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기념식
정읍 내 다른 복지관서도 잔치 열려**

정읍시는 지난 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지역 어르신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을 기리는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읍시립농악단의 신명 나는 식전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케이션을 달아드리고 효행자와 장한어버이를 비롯한 효 실천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올해 결혼 60주년(금혼)을 맞은 어르신 부부 한 쌍과 50주년(회혼)을 맞은 두 쌍을 축하하는 금회혼식이 거행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집 원아들의 귀여운 축하 공연도 이어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행사는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영양 도시락을 제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에는 어르신들의 숨은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은빛가요제'가 펼쳐져 참석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지역 내 다른 복지관에서도 풍성한 잔치가 열렸다. 신태인읍에 있는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은 '효 나눔잔치'를 열어 7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문화 공연과 식사를 대접했다. 칠보면에 위치한 섬진강남노인복지관 역시 어르신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사랑해효(孝)' 행사를 열고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지난 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지역 어르신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을 기리는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읍시립농악단의 신명 나는 식전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케이션을 달아드리고 효행자와 장한어버이를 비롯한 효 실천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올해 결혼 60주년(금혼)을 맞은 어르신 부부 한 쌍과 50주년(회혼)을 맞은 두 쌍을 축하하는 금회혼식이 거행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집 원아들의 귀여운 축하 공연도 이어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행사는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영양 도시락을 제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에는 어르신들의 숨은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은빛가요제'가 펼쳐져 참석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지역 내 다른 복지관에서도 풍성한 잔치가 열렸다. 신태인읍에 있는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은 '효 나눔잔치'를 열어 7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문화 공연과 식사를 대접했다. 칠보면에 위치한 섬진강남노인복지관 역시 어르신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사랑해효(孝)' 행사를 열고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스위트호텔 대면회장서 기념 행사

남원시는 지난 8일 지역 어르신과 내외빈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孝)의 잔치인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남원 스위트호텔 대면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가 주관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시의회 의장, 도의회 임종명 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노암동 자치사랑방 회원들의 라인댄스 공연과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흥겹게 시작됐으며, 이어 효행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품 전달 기념사와 축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평소 지극한 효심과 경로효친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효행자 3명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2명에게 시상 표창이 수여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행사 마지막에는 남원 시립 청소년합창단이 '어버이날 노래'를 합창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난 8일 지역 어르신과 내외빈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孝)의 잔치인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남원 스위트호텔 대면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가 주관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시의회 의장, 도의회 임종명 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노암동 자치사랑방 회원들의 라인댄스 공연과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흥겹게 시작됐으며, 이어 효행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품 전달 기념사와 축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평소 지극한 효심과 경로효친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효행자 3명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2명에게 시상 표창이 수여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행사 마지막에는 남원 시립 청소년합창단이 '어버이날 노래'를 합창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시 실내체육회관에서 기념 행사

김제시는 지난 8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어르신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주관했으며,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어르신 맞춤형 체험부스 운영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유공자 등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들은 평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효행과 봉사를 실천해 온 인물들로, 이번 기념행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로효친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18개 체험부스가 운영돼 건강, 복지,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함께 주신 어르신과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가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 공경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8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어르신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주관했으며,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어르신 맞춤형 체험부스 운영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유공자 등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들은 평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효행과 봉사를 실천해 온 인물들로, 이번 기념행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로효친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18개 체험부스가 운영돼 건강, 복지,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함께 주신 어르신과 관계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가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 공경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충동, 취약계층 어르신에 케이션 화분 전달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라)는 지난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음 온(ON) 나눔 사업'으로 케이션 화분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홀로 생활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간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취약계층 가구에 육아용품 전달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 7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된 저소득 다자녀 취약계층 가구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육아용품을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번 지원은 가정 방문 중 발굴된 가구로 저소득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게 됐으며, 지원된 육아용품은 분유, 기저귀로 다자녀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원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통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취약계층 가구의 현실적인 필요를 파악해 이루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농가주부모임, 우리쌀 소비촉진 캠페인

김제농협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7일 김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다같이 쌀소짓는 가치소비! 쌀소비! 우리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떡을 나눠주며 쌀 소비 확대와 지역 농산물 애용을 당부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사랑의 행복나눔 반찬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과 나눔 물품을 지역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안농협, 어버이날 기념 사랑의 떡 나눔 행사

김제 금안농협(조합장 최승은)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전 조합원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금안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회장 강효례) 13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정성껏 준비한 떡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가정마다 직접 전달하며 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교도소,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지난 8일 직원교육실에서 2026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엄익준 전주기독병원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4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신규 교정위원들에게 교정위원증도 함께 수여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전주교도소와 협력해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 등 교정행정에 힘써 참여하게 된다. 엄익준 행정위원장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관심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법무부 교정분부는 민간인의 교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정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주교도소에는 약 140여 명의 교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5천 4백여 명의 교정위원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0만호 기자



정읍장애인복지관, 시민권리옹호단 양성 개강식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7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20명이 참여하는 '시민권리옹호단 양성사업'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전북과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단장 최미혜)과 연계해 마련한 이번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매주 목요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장애인 12명과 전북과학대학교 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8명 등 총 20명이 참여해 45차시 과정으로 소화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권리 교육, 체험 활동, 성과 공유회 등을 아우른다. 세부적으로는 시민옹호단 역할 이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 인권 감수성 훈련, 시민 홍보 활동 기획, 대중매체 활용과 홍보물 제작, 편의시설 점검 등 다채로운 과정으로 짜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노사발전재단 전북노사상생센터, 상생협력교육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 전북노사상생센터(센터장 김인수)가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 노사상생협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BYC빌딩 5층 호남지사 강의실에서 열리며, 기업 현장의 노사 갈등 예방과 상생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올해 노동 현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비롯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검토 등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어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법과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 접근성과 대응 여력이 부족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 주요 노동정책 변화와 쟁점, 최신 노동법제 분석, 기업 현장의 시사점과 실무 대응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기업 CEO와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일반 근로자 등이며 노무법인 소속은 제외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노사상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민수씨 부친(고 김현봉씨) = 별세일: 6일, 발인: 8일(완료), 장지: 군산송화원, 익산 영묘묘원